

전기기사 최고령 자격취득합격자 인터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2009년도) 전기기사 자격시험 응시자중 최고령 자격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1950년생이 최고령 합격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고령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는 도전의 결실을 알리기 위함.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유원규 회원 (No. 138260)

Q 회원님께서는 타 학과를 전공하여 타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저는 대학때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현대모비스라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입사해 제어설계업무를 하다 명예퇴직을 하였고, 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유지관리업체에 입사를 하면서 전기관련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써는 일을 시작하는데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고 기계와 전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를 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분야였던 전기분야는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로워 더욱더 알고 싶다는 욕구와 전공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시험은 과목과 범위가 광범위해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학때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발전기, 전동기 등 전기공학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비교적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공학용어, 수식에 의한 계산문제 등이 낯설지 않아 늦은

나이에 타 전공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얻은 것 같습니다.

Q 요즘 자격증 시험이 어렵다고 하던데 전기기사 자격시험 합격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처음 전기관련 자격공부를 시작하려고하니 범위도 넓고 공부할 것 또한 많아서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앞섰지만, 한번 결심하면 “할 수 있다”는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 학과를 전공한 저로써는, 전기분야 자식습득을 우선이라 생각되어 인터넷 등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고 전기관련 카페등을 가입하여 자격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카페에는 자격합격 선배들의 합격수기 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들만의 공부방법과 노하우를 모니파이해 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위한 교재는 직접 서점을 찾아가 관련서적을 비교한 후 나에게 맞는 서적을 선정해 교재를 똑같이 써봄으로써 “눈으로 읽고 손으로 한번 더 기억”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고, 시험 경향 파악을 위해 10년전 과도년 문제를 모두 구해 풀어보고 오답은 나만의 요약노트를 만들어 정리하여 꾸준히 공부한 것이 합격이라는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Q 자격증 취득을 위한 회원님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합격 후 소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노하우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mp3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시 전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보면 책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또한 공학계열은 특성상 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약한 내용을 내 목소리로 녹음하여 mp3에 담아 반복해서 듣는 방법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본인의 목소리이기에 친숙함이 더해져 쉽게 외워지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또 하나의 노하우를 말씀 드리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동기부여와 열심히 공부한 후의 결과인 “자격증 합격”에 대한 기쁨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에 지친 자신을 다 잡아주는 활려소 역할을 할 것이며, 공부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어 항상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합격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 질 때의 기쁨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저한테 자격증 합격은 이만큼의 기쁨이었습니다.

Q 회원님의 인생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저는 “하면 된다”입니다.

모든 열심히 하면 못할게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모두가 말하는 상황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된다”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무엇을 하고자 마음먹고 시작할 때에는 일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말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수학자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그냥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성인이 될 때까지 재능이 뛰어나지도 다른 사람처럼 일찍부터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이때부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기준과 방법으로 정해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수학자가 말한 노력의 기준은 남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고, 노력의 방법은 어떤 문제(한계)에 부딪히면 미리 남보다 시간을 두세 배 더 쓸 각오로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더 큰 노력’은 그를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을 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의 재능을 탓하고 현실에 안주했다면 그는 남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수학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능, 재능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더딜 수는 있지만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노력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기술계의 최고 자격인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저도 히로나카 헤이스케처럼 노력의 기준과 노력의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격증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처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초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증시험은 일정관리가 중요 했던 거 같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은 과목도 많고 내용도 많다 보니 시간에 쫓겨 공부를 하다보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수 있고 시험일정에 맞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험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돼 후회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에 맞는 공부 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올해 자격증 시험일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자격증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